**알라와까의 경**

(Āḷavakasuttaṃ -To Ālavaka the Demon-알라와까경, 숫따니빠따 Sn1.10,전새성님역)

[Alavaka sutta](\*1)

주해(\*1)

이 사건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뒤, 16년후의 사건이다.

알라비 국의 왕은 뱅골 보리수에 살고 있는 식인귀인 야차 알라와까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왕은 야차에게 매일 한 사람씩 제물로 바치기로 약속하고 풀려났다. 왕은 시장과 대신들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죄인들을 제물로 바쳤고 죄인들이 떨어지자 각 가정에서 한 어린아이를 바쳐왔다.

여인들은 자신의 아이가 제물로 바쳐질 때가 되면, 아이를 데리고 왕도를 떠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왕은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마침내 왕의 아들인 알라와까 꾸마라만이 남아서 차례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왕은 왕자에게 옷을 잘 입히고 치장하여 야차에게 데리고 갔다.

그때 부처님은 자비의 눈으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채고 야차들이 사는 궁전으로 찾아갔다. 야차 알라와까는 야차들이 모여사는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에 가 있었다. 궁전의 문지기 가드라바는 부처님에게 대하는 야차들의 무례를 꾸짖고는 부처님께 궁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

부처님은 가드라바가 히말라야로 가서 부처님의 도착을 알리는 동안 알라와까의 보좌에 앉았다. 부처님은 알라와까의 궁녀들과 야차 싸따기라와 헤마와따에게 설법을 했다. 싸따기라와 헤마와따는 마침 공중으로 날아서 히말라야의 모임에 가는 도중이었는데,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머리 위로 날 수가 없어서 야차 알라와까의 궁전에 내려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된 것이다. 그들은 설법을 듣고 경의를 표하고 여행을 다시 떠났다.

야차 알라와까가 가드라바와 싸따기라와 헤마와따에게서 부처님의 방문 소식을 듣자 매우 노하게 되어 자신의 이름을 전 인도를 진동시킬 만한 큰소리를 외치며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러 가지 신통한 힘을 모두 동원했으나 부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었다. 특수한 무기인 둣싸부다도 부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야차 알라와까는 부처님께 이 궁전을 나갈 것을 명령하면서 이 경전이 시작된다. 부처님은 세 차례나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의 분노를 식힌 뒤에 네 번째에 그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야차 알라와까는 질문을 던져 부처님을 괴롭히려고 생각했다.

야차 알라와까의 부모는 깟싸빠 붓다로부터 이 경에 나오는 질문과 대답을 배워서 알라와까가 어렸을 때 가르쳐주었으나 알라와까는 그것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것들을 황금색 잎에 붉은 글씨로 기록해 그들의 궁전에 두었는데, 나중에 알라와까는 그것을 발견하였고, 이 경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 깟싸빠 부처님의 대답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다. 야차 알라와까는 대단히 만족하였고 진리의 흐름에 든 이가 되었다.

날이 밝자 알라와까왕의 부하들이 알라와까 꾸마라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야차를 찾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부처님의 설법이 끝났을 때에 야차들의 환호소리를 듣고 매우 놀랐다. 그들이 제물을 가져왔다고 야차 알라와까에게 고하고 왕자아이를 건네주자, 야차 알라와까는 부처님 앞에서 매우 부끄러워했다.

야차 알라와까는 그 왕자아이를 부처님에게 건네주었고 부처님은 아이를 축복하고 왕의 부하들에게 돌려주었다. 그 왕자아이는 이후에 알라와까의 손에서 부처님의 손으로 건네졌다는 의미에서 핫따까 알라와까로 알려지게 되었다.

알라와까 왕과 시민들은 야차 알라와까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벳싸바나 근처에 특별한 궁전을 마련하고 꽃과 향료등을 공급했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는 알라비(\*1)국의 알라와까라는 야차의 처소에 계셨다.

주해(\*1) 알라비국 :

사왓티에서 30 요자나 베나레스에서 12요자나 떨어진 도시 또는 나라의 이름이다. 사왓티와 라자가하 중간에 놓여 있었다.

이 도시의 왕과 주민은 모두 Alavaka라고 불리었고 나중에 거기에 살던 야챠도 Alavaka라고 불리었다. 이 도시에는 많은 수행승들이 살았고 승원도 있었다.

2.

이 때 야차 알라와까는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알라와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세존께서는 나가셨다.

또 야차는 말했다.

[알라와까]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세존께서는 들어오셨다.

3.

두 번째에도 야차 알라와까는 말했다.

[알라와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다시 세존께서는 다시 나가셨다.

다시 야차는 말했다.

[알라와까]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다시 세존께서는 들어오셨다.

4.

세 번째에도 야차 알라와까는 말했다.

[알라와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또 다시 세존께서는 다시 나가셨다.

또 다시 야차는 말했다.

[알라와까]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또 다시 세존께서는 들어오셨다.

5.

네 번째에도 야차 알라와까는 말했다.

[알라와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존]

“나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겠소 그대 할 일이나 하시오.”

[알라와까]

“수행자여,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내게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산란케 하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잡아 갠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6.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존]

“벗이여,

신들의 세계에서, 악마들의 세계에서,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 가운데,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내 심장을 찢고 두 다리를 잡아 갠지스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친구여, 그대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나 물어보시오.”

7.

야차 알라와까는 세존께 다음의 시로써 말을 걸었다.

[야차 알라와까]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 추구하면 안락을 가져옵니까?

참으로 맛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입니까?”

8.

[세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이고,

가르침을(\*1) 잘 추구하면 안락을 가져옵니다.

진실이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해(\*1) 가르침 - 열 가지 착하고 건전한 행위의 길에 대한 법(十善業道法)

1)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법,

2)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는 법,

3)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는 법,

4) 거짓말을 하는 것을 삼가는 법,

5) 중상을 하는 것을 삼가는 법,

6) 욕지거리를 하는 것을 삼가는 법,

7) 꾸며대는 것을 삼가는 법,

8) 탐욕이 없는 것,

9) 분노가 없는 것,

10) 올바른 견해를 지니는 것.

9.

[야차 알라와까]

“사람은 어떻게 거센 물결을(\*1) 건넙니까?

어떻게 커다란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괴로움을 뛰어 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습니까?”

10.

[세존]

“사람은 믿음으로써 거센 물결을 건너고,

방일하지 않음으로 커다란 바다를(\*2) 건넙니다.

정진으로 괴로움을 뛰어넘고(\*3)

지혜로 완전히 청정(\*4)해집니다.

주해(\*1) 거센 물결 :

윤회의 바다에서 생사가 거듭되는 것을 거센 물결(暴流)에 비유한다. 열반은 그러한 거듭되는 윤회가 끝나 파도가 미치지 않는 해안을 뜻한다.

또 거센 물결에는 감각적 쾌락의 거센 물결, 견해의 거센 물결, 무지의 거센 물결이 있다. 거센 물결의 경에 따르면, 하늘사람과 세존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거센 물결을 건너셨습니까?”

"벗이여, 나는 참으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 물결을 건넜다.

벗이여, 내가 머무를 때에는 가라앉으며 내가 애쓸 때에는 휘말려 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거센 물결을 건넜던 것이다.”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가는데는 머물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지만 잘못 인도된 의지와 노력은 운명적 파탄을 초래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올바른 귀의와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힘들이지 않고 윤회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

주해(\*2)

방일하지 않음으로 존재의 거센 물결을 건너는 한번 돌아오는 님이나 그 경지를 향하는 님을 말한다.

주해(\*3)

정진으로 존재의 거센 물결을 건너는 돌아오지 않는 님이나 그 경지를 향하는 님을 말한다.

주해(\*4)

무지의 거센 물결을 건너는 거룩한 님이나 그 경지를 향하는 것을 말한다.

11.

[야차 알라와까]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칩니까?

어떻게 해서 친교를 맺습니까?

또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서 슬픔을 여의겠습니까?”

12.

[세존]

“열반에 도달하기 위하여

거룩한 이의 가르침을 믿고 방일하지 않고 현명한 자라면,

배우려는 열망을 통해 지혜(\*1)를 얻습니다.

13.

알맞은 일을 하고(\*2) 멍에를 지고(\*3)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그는 진실함으로써 명성을 떨치고, 보시함으로써 친교를 맺습니다.

14.

가정생활을 하는 신도일지라도(\*4),

진실, 진리, 결단, 보시의 이 네 가지 원리를 갖추면,

내세에 가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15. 그리고 진실, 자제, 보시, 인내보다

이 세상에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수행자나 바라문에게 물어보시오.”

주해(\*1) 지혜

- MN.II.173에 따르면

“믿음이 확립되면 존중하게 되고,

존중하면 섬기게 되고,

듣게 되면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

배우게 되면 가르침에 대한 마음챙김이 생겨나고

마음챙김이 생겨나면 가르침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게 되고,

의미를 고찰하게 되면 가르침에 대한 성찰을 수용하게 되고,

가르침에 대한 성찰을 수용하게 되면 의욕이 생겨나게 되고,

의욕이 생겨나면 노력하게 되고,

노력하면 깊이 관찰하게 되고,

깊이 관찰하면 정근하게 되고,

정근하면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며,

마침내 지혜로써 꿰뚫어 보게 됩니다”

주해(\*2) 알맞은 일

- 장소와 시간 등을 벗어나지 않고 세간적 혹은 출세간적인 재산(예를 들어 아라한의 경지)을 얻는데 알맞은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해(\*3) 멍에

- 책임으로서 멍에를 말한다. ‘마음의 힘으로 멍에를 버리지 않는’이다.

주해(\*4) 가정생활을 하는 신도

- 다섯가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자를 말한다.

16.

[야차 알라와까]

“어찌 다른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에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커다란 과보가 있는 것을 부여 받았음을 저는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17.

깨달은 님께서 알라비에서 지내려고 오신 것은 참으로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커다란 과보가 있는 가르침을 받았음을 저는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18.

올바로 깨달은 님과 잘 설해진 뛰어난 가르침에 예경하면서(\*1)

저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주해(\*1) 예경

- 여기서 우리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 가운데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귀의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숫타니파타가 초기불경가운데서도 고층의 경전임을 알 수 있다.

- 알라와까의 경이 끝났다. -

Khuddakanikāye   
Suttanipāto

1. 10 Āḷavakasuttaṃ

Evaṃ me su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āḷaviyaṃ viharati āḷavakassa yakkhassa bhavane atha kho āḷavako yakkho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bhagavantaṃ ekadavoca: nikkhama samaṇāti,

Sādhāvusoti bhagavā nikkhamī,   
Pavisa samaṇāti,   
Sādhāvusoti bhagavā pāvisi,

Dutiyampi kho ālavako yakkho bhagavantaṃ etadavoca, nikkhama samaṇāti,

Sādhāvusoti bhagavā nikkhami,   
Pavisa samaṇāti,   
Sādhāvusoti bhagavā pāvisi,

1 Suhuṭaṭhitaṃ-sīmu. 2.

[BJT Page 56] [\x  56/]   
Tatiyampi kho āḷavako yakkho bhagavantaṃ etadaveca: nikkhama samaṇāti,

Sādhāvusoti bhagavā nikkhami,   
Pavisa samaṇāti,   
Sādhāvusoti bhagavā pāvisi,

Catutthampi khe āḷavako yakkho bhagavantaṃ etadavoca: nikkhama samaṇāti,

Nakhvāhaṃ taṃ āvuso [PTS Page 032] [\q  32/]      nikkhamissāmi yaṃ te karaṇīyaṃ taṃ karohīti,

Pañhaṃ taṃ samaṇa pucchissāmi, sace me na vyākarissasi cittaṃ vā te khipissāmi. Hadayaṃ vā te phālessāmi, pādesu vā gahetvā pāragaṅgāya khipissāmīti,

Nakhvāhaṃ taṃ āvuso passāmā sadevake loke samārake sabrahmake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yo me cittaṃ vā khipeyya hadayaṃ vā phāleyya pādesu vā gahetvā pāragaṅgāya khipeyya, api ca tvaṃ āvuso puccha, yadākaṅkhasīti.

Atha kho āḷavako yakkho bhagavantaṃ gāthāya ajjhabhāsi:

183. Kiṃ sūdha cittaṃ purisassa seṭṭhaṃ   
Kiṃ sū suciṇṇaṃ1 sukhamāvahāti,   
Kiṃsū bhave sādutaraṃ2 rasānaṃ   
Kathaṃ jīviṃ jīvitamāhu seṭṭhaṃ.

184. Sadadhīdha cittaṃ puesassa seṭṭhaṃ   
Dhammo suciṇṇo sukhamāvahāti   
Saccaṃ bhave sādutaraṃ rasānaṃ   
Paññājīviṃ jīvitamāhu3 seṭṭhaṃ.

185. Kathaṃ su tarati oghaṃ kathaṃ su tarati aṇṇavaṃ,   
Kathaṃ su dukkhaṃ acceti kathaṃ su parisujjhati.

1 Suciṇṇo-sīmu. 2.   
2 Sādhutaraṃ-pu, syā.   
3 Jīvanamāhu-pu.

[BJT Page 58] [\x  58/]   
186. Saddhāya [PTS Page 033] [\q  33/]      taratī oghaṃ appamādena aṇṇavaṃ,   
Viriyena dukkhamacceti1 paññāya parisujjhati.

187. Kathaṃ su labhate paññaṃ katha su vindate dhanaṃ,   
Kathaṃ su kittiṃ pappoti kathaṃ mittāni ganthati.   
Asmā lokā paraṃ lokaṃ kathaṃ pecca na socati.

188. Saddāhāno arahataṃ dhammaṃ nibbānapattiyā,   
Sussūsā labhate paññaṃ appamatto vicakkhaṇo.

189. Patirūpakārī dhuravā uṭṭhātā vindate dhanaṃ,   
Saccena kīttiṃ pappoti dadaṃ mintāni ganthati.

190. Yassete caturo dhammā saddhassa gharamesino,   
Saccaṃ dhammo dhitī cāgo sa ve pecca na socati.

191. Iṅgha aññepi pucchassu puthu samaṇabrāhmaṇe,   
Yadi saccā damā cāgā khantyā bhīneyā vijjati.

192. Kathaṃ nu dāni puccheyyaṃ puthu samaṇabrāhmaṇe,   
So haṃ ajja pajānāmi yattha dinnaṃ mahapphalaṃ.

193. Atthāya vata me buddho vāsāyā'ḷavimāgamī,   
So haṃ ajja pajānāmi yattha dinnaṃ mahapphalaṃ.

194. So ahaṃ vivarissāmi gāmā gāmaṃ purāpuraṃ,   
Namassamāno sambuddhaṃ dhammassa ca sudhammatanti.

1 Dukkhaṃ acce ti-sīmu. 2.

[BJT Page 60] [\x  60/]   
Evaṃ vutte āḷavako yakkho bhagavantaṃ etadavoca. Abhikkantaṃ bho gotama, abhikkantaṃ bho gotama, seyyathāpi bho gotama nikkujjitaṃ vā uttujjeyya pacicchannaṃ vā vivareyya mūḷhassa vā maggā ācikkheyya andhakāre vā telapajjotaṃ dhāreyya cakkhumanto rūpāni dakkhintīti, evamevaṃ bhotā gotamena anekapariyāyena dhammo pakāsito, esāhaṃ bhagavantaṃ gotamaṃ saraṇaṃ gacchāmi, dhammañca bhikkhusaṅghañca. Upāsakaṃ maṃ bhavaṃ gotamo dhāretu ajjatagge pāṇepetaṃ saraṇaṃ gatanti.

Āḷavakasuttaṃ niṭṭhitaṃ.

**Khuddhaka Nikaya**

**Sutta Nipāta**

**10. Ālavaka Sutta.**

**To Ālavaka the Demon.**

Thus I heard.

At one time the Blessed One lived in the domain of the demon Aalavaka. Then the demon Aalavaka approached the Blessed One and said:

“Recluse, go out. "

The Blessed One said: “Alright friend. " and went out.

Then he said “Recluse, enter. "

The Blessed One said “Alright friend" and entered.

For the second time, the demon said “Recluse, go out. "

The Blessed One said: “Alright, friend" and went out Again,

the demon said, “Recluse, enter. "

The Blessed One said: “Alright friend" and entered.

For the third time the demon said: “Recluse, go out. "

The Blessed One said:"Alright, friend" and went out.

Again the demon said, “Recluse, enter. "

The Blessed One said: “Alright, friend" and entered.

For the fourth time the demon said: “Recluse, go out"

The Blessed One said: “Friend, I will not go out , do whatever you could do. "

“Recluse, I will ask you a question, if you do not explain it, I will confuse your mind, or will split your heart, or will take you by the feet and throw to the other bank of the river. "

“In this world of gods and men, together with Māras, Brahmas, and the community of recluses and brahmins I do not see anyone who could confuse my mind, or split my heart, or taken by the feet could throw me to the other bank of the river. Yet, do ask, whatever you desire to.

Then the demon Aalavaka addressed the Blessed One in verse.

181. "Of wealths what is the foremost to a man, what well practised brings pleasantness

Of tastes what is the foremost, and living how is the foremost livelihood. "

182. . "Faith, is the foremost wealth to man, the Teaching well practised brings pleasantness.

Of tastes truth is the foremost The livelihood of one living wisely is said to be the foremost. "

183. “How is the flood crossed, how is the ocean crossed,

How does unpleasantness exhaust, and how does purity come about. "

184. “With faith, the flood is crossed, with diligence the ocean,

With effort unpleasantness gets exhausted, and with wisdom purity comes about"

185. "How is wisdom obtained and how is the wealth experienced,

How does one become famous, and how are friends bound.

Gone from this to the next world, how is there no grief. "

186. “Placing faith in the perfect state and the Teaching to attain extinction,

Those that listen to it diligently and discriminatingly gain wisdom.

187. Those suitably yoked with aroused effort experience the Teaching

Through truthfulness one becomes famous and by giving friends are bound.

188. To a householder with faith, if there be truthfulness, training,

Right view and generosity, he would not grieve afterwards.

189. Now come on, question other recluses and brahmins, to know,

Whether there is much truthfulness, training, generosity and forbearance evident here.

190. “What is there to question now, from recluses and brahmins

Today I know what is essential for the next birth.

191` It is for my good that the Enlightened One came to Aalavi,

Now I know that, given to whom is of much fruit.

192Ṇow I will go from village to village and from town to town,

Worshipping the all Enlightened One and the goodness of the Teaching. "

193. When walking, standing, sitting or even lying, it is bending and stretching,

These are the movements of the body.

194. Bones and veins bound together are covered up with flesh and skin,

The body is covered up with the skin, and the true state is not seen.

195. The inside is full, the stomach is full with the liver and sexual organs

So also with the heart, lungs, kidneys and the spleen.

196. It is also full of snot, saliva, sweat and oil of the body,

With blood, oil of the joints, bile and the hardened oil.

197. Then from the nine external doors secrete filth all the time.

Through the eyes and ears there are secretions

198. There is snot coming from the nose and through the mouth vomit,

So also bile or phlegm is vomited, from all over the body sweat trickles

199. His perforated scull is filled with marrow

The fool deluded thinks it is something agreeable.

200. When he lies on his back dead, bloated and turned blue

And thrown into the charnel ground, he is not owned by his relatives.

201. It is eaten by dogs, jackals, wolves and worms,

Crows and hawks too eat it, and whatever other creatures there be.

202 The bhikkhu hearing the words of the Enlightened One, becomes wise,

Looks at the body as it really is, and learns it thoroughly.

203. . As I am now, this body also was: as this body is, so I will be,

Thus he dispels interest for the body internally and externally1

204. The bhikkhu dispelling interest and greed for the body becomes wise

Realises deathless appeasement and experiences extinction

205. This two footed thing is filth giving out a bad smell

It is full of various kinds of filth and strews them here and there.

206. With such a body, if one thinks conceitedly,

Or if he talks low of others, -what is it other than lacking in wisdom.